

The New York Times

한국 미술계의 거장, 자신의 유산을 세상에 남기려 하다

화가 박서보(89)는 그의 작품을 소장할 두 개의 미술관 건립과 연이은 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의 딸이 진솔하게 집필한 책도 출간되었다.



박 화백은 기품있는 나무 지팡이를 의지해 걷는다. 그러나 차를 마시며,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엄청난 성공 이야기를 풀어내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흘러넘쳤다. 올해 봄 런던의 화이트 큐브에서 열렸던 회고전 이후, 서울의 국제 갤러리, 일본 도쿄의 갤러리+BTAP, 프로방스에 있는 샤토 라코스테 뮤지엄 등 더 많은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의 딸이 쓴 감동적인 전기가 영문으로 번역되었으며, 그는 하나도 아닌 두 개의 미술관 설립을 한국에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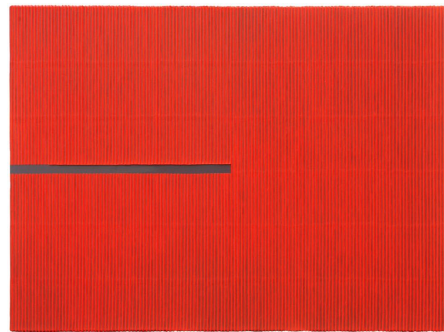
이러한 두 갈래 전략은 어떤 어려운 길도 쉽게 피해 가려 한 적이 없었던 박 화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였던 1931년 예천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법대에 가기를 바랐다. 몰래 지원했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실망해서 2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고 한다. “화가란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매우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지.”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젊은 예술가 박재홍은 서울로 향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미술대학 1학년 때 학업은 중단되었고, 처음에는 북한군에 의해, 다음에는 마산에 주둔 중이던 남한군에 의해 강제 징집되었다. 공중 폭격, 턱없이 부족한 식량 배급,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그는 마침내 제대하여 서울로 돌아왔다.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던 그는 당시 주한미군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들에게 받은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어 미술 재료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남은 식자재로 만든 죽을 샀다. “죽 한 그릇, 소주 한잔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 최근 어느 오후,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핑크색 스카프를 두른 박 화백을, 그의 작업실과 갤러리 그리고 생활 공간이 함께 있는 ‘기지’라는 복합 공간에서 만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2018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이-강렬한 색채와 가느다란 선들의 떨림이 어우러진 색 면 추상화들- 벽에 걸려 있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시아 미술 관련 수석 큐레이터인 알렉산드라 먼로는 오늘날의 그를 “스승으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한 바 있다. 올해 11월이면 그는 90세가 된다.



1955년, 졸업을 앞둔 박 화백은 군대 소집을 피하고자 서울을 떠났고 ‘서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지금도 쓰고 있는 이름이다. 그는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 수상한 후, 동료 미술가들과 함께 국전의 보수성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구대의연한 예술계의 아집에 대한 반란”을 선언했고 독립 전시회를 만들었다.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있던 많은 동료와 마찬가지로 박서보는 전쟁에 대한 공포를 격렬하고 공격적인 추상으로 표현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하여 “나는 항상 울었어. 작은 벌레도 무서워했거든. 그런 나를 전쟁이 강하게 만들었어.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라고 말했다.

그의 젊은 시절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박 화백이 1958년 미술대학 신입생이었던 윤명숙과 결혼했을 때,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동료 예술가인 김창열이 남쪽으로 향하는 그들의 신혼여행에 동행해 주었다. 경찰 신분증은 검문소에서 빛을 받게 도망자 신세인 신랑이 구급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결혼 후 부부는 재건 중이었던 가난한 서울에서 검소하게 살았다. 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박 화백이 작업과 강의를 병행하며 전쟁과 같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의 아내가 생계를 이어갔다. 마침내 그는 홍익대학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술적으로 표류하던 1960년대 후반, 그는 자신의 그림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그는 작업 방향을 찾기 위해 불교와 유교 서적을 읽고 있었다. 어느 날, 세 살배기 둘째 아들 승호가 (지금은 승) 국어 쓰기 공책의 칸들 안에 글씨 연습을 하느라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애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어. 근데 녀석이 진절머리가 났는지 이렇게 벽벽 그어 버리더라고.” 그는 격렬한 몸짓을 흉내 내듯 움직이며 말했다. “지우개 자국이 너무 많았어. 그때 깨달았지. 저게 포기구나. 체념이구나.”



박 화백은 그 깨달음을 예술에 접목했다. 캔버스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올려놓은 나지막한 받침대에 앉아 젖은 화이트 물감 위로 연필을 물결치듯 빠르게 반복해서 움직였다. 표현주의자라는 표식을 떼어내고 “행위의 무한 반복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Ecriture (묘법, 프랑스어로 ‘쓰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 매혹적인 그림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하는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관객의 눈을 놓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회끄무레한 색, 거무스름한 색 그리고 회색이 희미하게 빛나는 표면은 움직이는 예술가의 손을 연상하게 한다. 박 화백은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박 화백이 일본에서 데뷔했던 해인 1973년에 제작된 아름다운 “Ecriture”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촘촘한 연필 선이 세로 1.8m 가로 2.7m가 넘는 공간을 가로지른다. “그 그림은 관객을 몰입시키고 어떤 분위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먼로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호흡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몸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묘법 시리즈로 박 화백은 단색화(모노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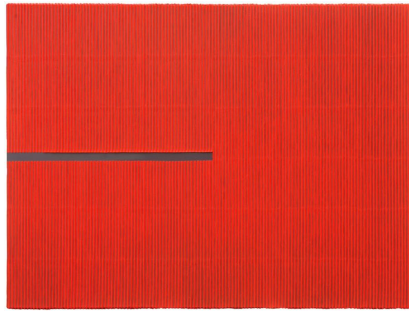
회화)로 알려진 넓은 의미의 한국 미술 운동의 리더가 되었다. 단색화 작가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기법과 외국 아방가르드 사조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재료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작품을 제작했다. 박 화백은 뽕나무 속껍질로 만든 한국의 질긴 종이인 한지를 작품에 사용했는데, 종이 가 풀프가 될 때까지 물에 담갔다가 캔버스 위로 올린 후 종이 가 마르기 전까지 작업을 이어나갔다.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단색화 전시는 단색화 작가들에게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그전까지 박서보의 친구들,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서 활동했던 이우환이나 프랑스가 무대였던 김창열처럼, 외국에서 살면서 활동했던 화가들은 좀 더 확실한 미술 시장에서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박서보는 한국에서 작업하면서, 가르치고, 아트 페스티벌의 형성을 돕기도 하면서 국내 미술계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한국이 많은 결점과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뿌리는 한국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작가이자 큐레이터 케이트 림은 “세계 미술 시장에서 그의 예술적 명성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혁신적 작품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종이를 색으로, 질감으로, 또 형태로도 만들어 냈다”고 언급했다. 국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 ‘살짝 분개한’ 그녀는 2014년 박서보의 영어 전기를 저술하기도 했다.

이런 자극은 박 화백의 딸인 박승숙이 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녀는 한국 전쟁을 견뎌내고 한국을 변영으로 이끌어 준 세대의 업적에 감명을 받았다고 이메일을 통해 전해왔다. “부모님들이 평생에 걸쳐 이루신 것들은 충분하고 훌륭했으며, 이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그녀의 책은 성공을 향한 아버지의 열정적 추진력에 대한 솔직담백하고 단호한 기록이다. 1980년대의 한 일화에서도 드러나는데, 박 화백은 단체전에 참여하는 작품 중 가장 큰 작품의 크기를 알려 달라고 큐레이터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다. 자신이 더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몰아붙이기로 유명한 교수였는데, 작업뿐만 아니라 술마시는 것도—당시는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던 시대였다—몰아붙였다. “인사불성으로 취해 필름이 끊긴 채로 길거리에서 자다 깨거나, 박서보 수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그녀는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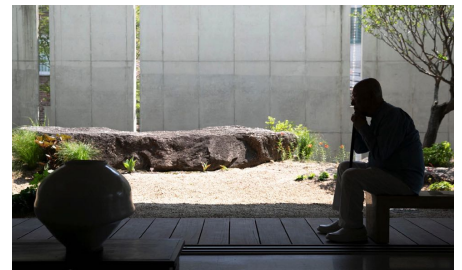
그녀는 마라톤 같은 작업 시간(현재는 하루 8시간 작업)과 그의 뒤편지 컨트롤하려는 성격 때문에 그의 아내가 이혼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었던 “길고, 잘 맞지 않고, 위험한 결혼”에 대해서도 적었다. 전직 미술 치료사였고 현재 영화 작업을 하는 승숙은 사실 “평생 그를 미워했다”고 한다. 그들은 사이 좋게 지내지 못했는데, 승숙은 아버지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8년 병에 걸린 아버지를 찾아간 그녀는 그의 약해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대화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열정적인 그는 느긋해졌다. 현재의 건강한 활동력을 위한 비법이 있는지 묻자 그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지. 곧잘 분노를 폭발하고야 말았어. 이제야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 박 화백은 두 번의 심장 마비와 한 번의 뇌경색을 앓고 회복했다. 그는 딸에게 “남자의 목숨은 아내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했다. (아내 윤명숙은 마침 개인 에세이집을 출간했고, 남편은 서문을 썼다) 2000년 부부가 함께 갔던 일본 후쿠시마 여행에서 본 단풍은 그의 예술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자연에 대한 것이고, 치유에 관한 것이 되었지.”라고 박 화백은 말한다. 관람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화

려한 색이 사용되었다. 박 화백은 지팡이를 짚고 갤러리를 거닐면서 단풍에서 영감을 받은 강렬한 붉은 색 작품을, 제주의 맑은 날 영감을 받은 노란색 작품을 가리켰다. 한 지 위에 좁은 기둥들, 우툴두툴한 능선들이—소박하고 오래된 재료로 만들어진 장식들이—자(번역자 설명: 연필심만 있는 굵은 연필)와 끝이 평평한 도구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캔버스에 줄을 지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난 1월, 어른거리는 물방울을 그렸던 박 화백의 오랜 동료 김창열 화백이 91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김 화백은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제 박 화백도 그 뒤를 따르는 중이다. 그의 두 미술관 중 첫 번째로 개관될 곳은 단색화 작업에 초점을 맞춘 미술관으로 2022년 8월에 서울 종로에서 개관될 예정이다. 토지는 종로구 지자체에서 제공해주었고, 약 2,000 제곱미터의 건축물은 양기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서보미술문화재단 (그의 첫째 아들인 박승조가 이사장이다.)을 통해 건축 기금이 마련되었다.

더욱 야심 찬 기획은 박 화백의 출생지인 예천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전 생애에 걸친 노력을 담은 미술관 건립을 위해 (그는 12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박 화백은 스위스 건축가 피터 Zumthor에게 구애해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Zumthor의 건축물은 독일 쾰른의 고풍한 미술관인 콜롬바(Kolumba)로 회색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 건축가와 아직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니며,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조율 중이다. 그러나 박 화백은 그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 내고야 마는 전력이 있다.

조선 시대 (1392~1910) 도자기인 달항아리 경매에 입찰할 때, 박 화백은 종종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했다. 적어도 여섯 점의 운기 나는 하얀 항아리가 공간 이곳저곳에 흩어져 놓여 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미친 사람처럼 사랑해.” 미묘하고 흥미로운 차이가 있던 하지만, 대부분 거의 원형에 가깝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몸 전체에 굵직하고 길쭉한 굴곡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가마의 ‘배 속에 있었던 괴상한 녀석’이라며, 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보통, 장인들은 이런 작품을 폐기하겠지만 “이 녀석은 비틀렸으면서도 균형을 잘 잡고 있었어. 혼자서도 잘 서 있으니 장인들이 깨뜨리지 않은 거겠지.”

A Towering Figure in South Korean Art Plans His Legacy

As the painter Park Seo-Bo, 89, pursues two museums for his art, the shows keep coming — along with a candid book by his daughter.

By Andrew Russeth

June 16, 2021

SEOUL — In 1951, as the Korean War dragged on, a young artist named Park Jae-Hong headed toward Seoul. The conflict had cut short his first year at art school, and he had been forced into service, first by the North, then by the South, stationed in coastal Masan. He had survived aircraft attacks, meager rations, bitter cold — and had managed to get discharged. Back in the capital, trying to raise tuition money, Park asked soldiers from the United States if he could do their portraits. He traded their dollars for won — Korea’s currency — and bought art supplies and congee made with leftovers from military bases. “One cup of that and a glass of soju, and I would be very happy,” he recalled, through a translator, during a recent afternoon visit.

A pink scarf wrapped around his neck, Park was sitting in the Gizi, a sprawling residence, work space and gallery in Seoul where he has lived with family since 2018. Some of his works — radiantly colored abstractions vibrating with thin lines — hung nearby. Today he is a “figure of towering influence, as a teacher and as an artist,” said Alexandra Munroe, the Guggenheim Museum’s senior curator for Asian art. In November he will turn 90.



Park in his studio and gallery, Gizi, in Seoul. Right, “Écriture No. 190512,” 2019. Woohae Cho for The New York Times

Though Park walks with an elegant wooden cane, he was full of energy as he sipped tea and uncorked stories about his remarkable career as it nears new milestones. After a spring show at White Cube in London, he has more on deck, at Kukje Gallery in Seoul, Tokyo Gallery+BTAP in Japan and Château La Coste in Provence. An English translation of a moving biography by his daughter is out, and he is seeing through not one but two museums of his art in Sou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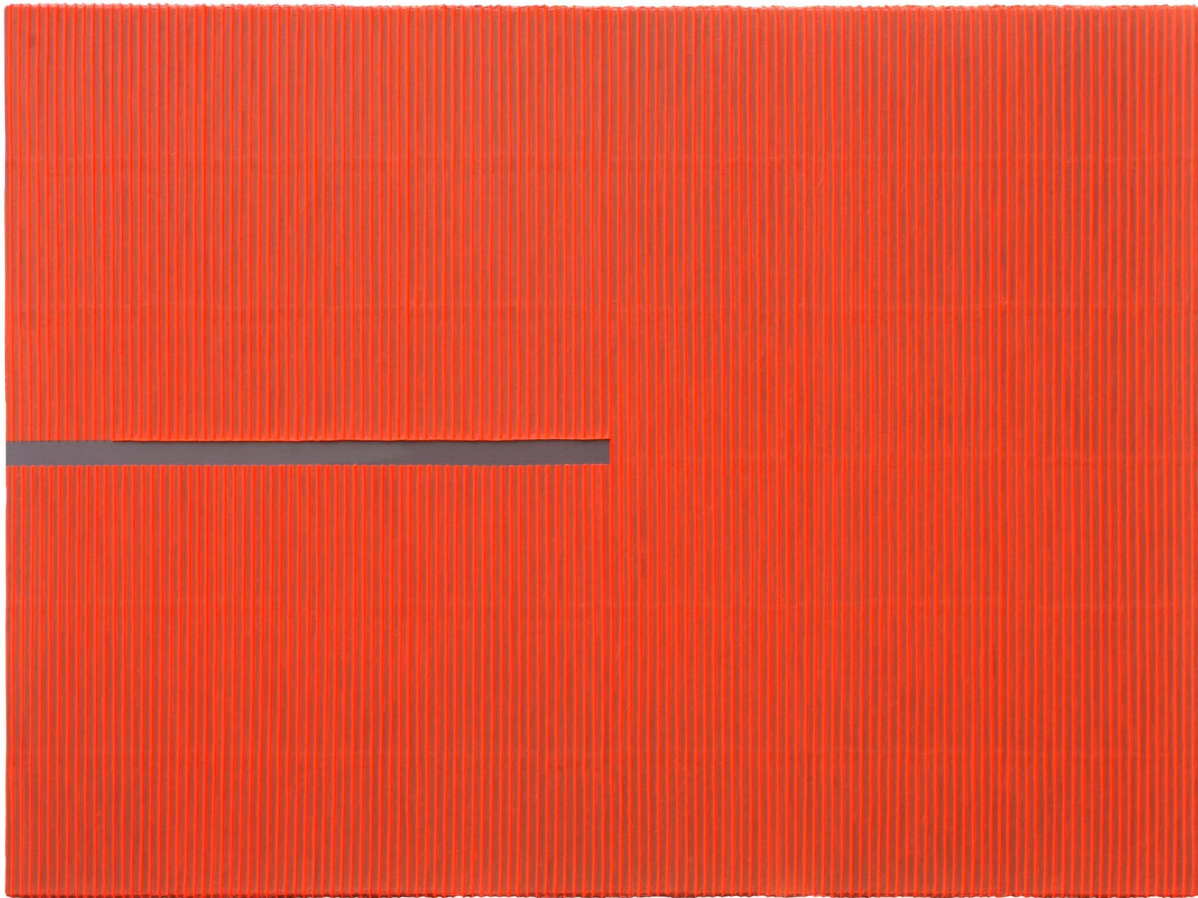
That two-pronged strategy is classic Park, who has never been one to make a difficult trek any easier. He was born in rural Yecheon in 1931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his father had wanted him to pursue law. When he was accepted into Hongik University’s art program (he had applied secretly), the elder Park “wouldn’t eat for

two weeks because of his disappointment,” he said. “A painter was considered poor and very low in the hierarchy of social status.”

On the verge of his 1955 graduation, Park fled Seoul to avoid a military call-up and adopted the alias Seo-Bo. He kept it. And after finding success in the official national exhibition, he protested its conservatism with fellow artists. They called for “an insurgency against the obstinacy of the old art scene” in a manifesto, and organized an independent show.



A recent show of Park Seo-Bo at White Cube Bermondsey. Park (with Lee Ufan and Kim Tschang-Yeul) helped move Korean art into modernity. Park Seo-Bo and White Cube; Ollie Hammick



“Écriture No. 110502,” 2011,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Park Seo-Bo and Kukje Gallery

Like many of his vanguard-minded peers, Park Seo-Bo channeled the horrors of the war into searing, aggressive abstractions. When he was young, he said, “I was always crying. I was even afraid of small insects. But the war made me really strong. It changed me completely.”

These early years are the stuff of feature films. When Park married a younger art student, Yoon Myoung-Sook, in 1958, Kim Tschang-Yeul, a fellow artist working as a policeman, accompanied them on their honeymoon south, flashing his credentials at checkpoints to ensure that the fugitive-groom was not detained. The couple lived frugally in Seoul, which was impoverished and rebuilding. A dictatorship held power. Yoon managed their living arrangements, as Park relentlessly painted and scrapped together teaching jobs, eventually settling at Hongik.

While artistically adrift in the late 1960s, he landed on his defining style. He was reading Buddhist and Confucian texts, trying to find a way forward. One day he watched his second son, 3-year-old Seung-Ho (now Seung), struggle to write a word inside a grid. “He was erasing it over and over again, and in the end he got so fed up that he ended up doing these scribbles,” Park said, violently moving his hand to imitate the action. “There were so many eraser marks. I realized it was all about giving up, letting go.”



Park Seo-Bo as a military service student with Lee Su-Heon, at Gwangju, December 1954. via GIZI Foundation



Park Seo-Bo's atelier at Hapjung-dong, Seoul, 1977. Ryu Kisung, via GIZI Foundation

Park brought that revelation to his art. Perched atop a low platform, a canvas beneath him, he ran a pencil in waves through wet white paint, again and again. Abandoning expressionist marks, he was pursuing what he called “endless action and infinite repetition.” These alluring paintings, which he titled “Écriture” (“writing” in French), are case studies in how simple actions, sustained over time, can bewitch. Shimmering fields of whites, blacks, and grays, they conjure an artist’s hand in motion. He has said making them was a way of “emptying” his mind.

The Guggenheim has a captivating “Écriture” from 1973 (the year Park debuted the series in Tokyo), with tight graphite rows flowing across an expanse more than 6 feet tall and 9 feet wide. “It becomes immersive and atmospheric,” Munroe said, describing the piece as “very much about imperfections. It’s also about breath. It’s

also about the mark of the body.”

The series made Park a leader of a loose Korean movement that came to be known as Dansaekhwa (“monochrome painting”), whose artists directed traditional materials toward inventive new ends, influenced both by indigenous practices and foreign avant-garde groups. Park eventually incorporated Korea’s sturdy hanji paper, made from the inner bark of mulberry trees, into his works, soaking it until it became a pulp and manipulating it atop canvases before it dried.



Park Seo-Bo is credited with revolutionizing painting and “mastering traditional paper as a color, as texture, even as a shape,” one curator said. KyungBum Kim

A Dansaekhwa show at the 2015 Venice Biennale raised the reputation of its artists. By then, some had found success living internationally, in more robust art scenes, like Park’s friends Lee Ufan in Japan and France, and Kim in France. But Park worked at home, taught and helped develop art festivals, becoming a kingpin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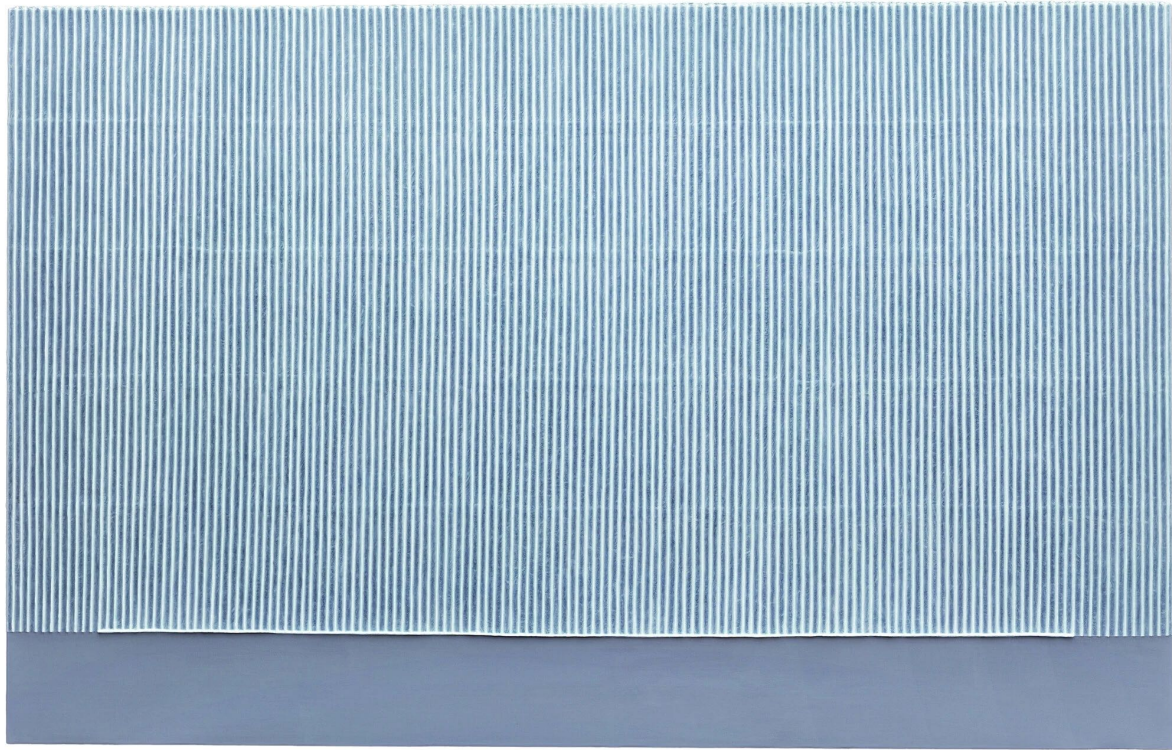
nation's art world.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a lot of faults, a lot of weaknesses, my roots are in Korea," he said.

That meant that Park's "artistic reputation in global art was not really up to what he deserved," said Kate Lim, a Korean writer and curator in Singapore who credits him with revolutionizing painting and "mastering traditional paper as a color, as texture, even as a shape." Being "slightly indignant" about his low profile abroad, she wrote an English-language biography in 2014.

A related impulse motivated Park's daughter, Seungsook, to write. She was struck by the accomplishments of the generation that endured the Korean War and guided the South into prosperity, she said in an email. "I wanted to tell my parents that what they had done for their whole life was enough, and great, and that it will be intact in the future."



Park Seo-Bo, "Écriture No.55-73," (1973). The series has tight graphite rows flowing across an expanse more than 9 feet wide. "It becomes immersive and atmospheric," said Alexandra Munroe of the Guggenheim, describing the piece as "about the mark of the body." Park Seo-Bo and Solomon R. Guggenheim Museum



“Écriture No. 120103,” 2012,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Park Seo-Bo and Gizi Foundation

Her book, free online, is an unflinching account of her father’s manic drive to succeed. In one revealing episode from the 1980s, he asks a curator to reveal the size of the largest work any artist is bringing to a group exhibition so that he can create an even larger display. He was a hard-driving professor, too, pushing students in their work, and — in an era of liberal alcohol consumption — their drinking. “You either got blind-drunk, blacked out, and woke up on the sidewalk or you dropped Seo-Bo’s classes,” she writes.

She describes marathon studio sessions (he now works eight hours a day) and a “long, adverse, unhealthy marriage,” with his early controlling behavior leading Yoon to mull divorce. Seungsook, a former art therapist now working in film, said she actually “hated him for all my life.” They didn’t get along and she considered him “a kind of person who wants to control everything because he thinks he is the best and trusts nobody.” But in 2018, he was ill, and when she visited, she was shocked by how weak he seemed. They started talking.

Over the years, the firebrand has cooled. “I maintain this peace inside,” Park said, when asked the secret of his present vigor. “Before, even a little thing would annoy me. I would be outraged. You might say I finally matured.” Park has bounced back from two heart attacks and a stroke. He told his daughter, “A man’s life depends on the mercy of his wife.” (Yoon, as it happens, has just published a book of personal essays; her husband penned its preface.) A trip the couple made to Fukushima, Japan, in 2000, to see its fall leaves dramatically changed his art.



The Dansaekhwa (monochrome) Korean artist. Woohae Cho for The New York Times

“Ever since then, it’s been about nature, it’s been about healing,” Park said. Sumptuous color entered, to comfort viewers. Grabbing his cane, he strolled through his gallery, pointing to a potent red piece inspired by that foliage and a yellow one drawing on a limpid day on Jeju island. Narrow columns of hanji, with rough tops, line the

canvases — ornamentation made with a humble, age-old material, gingerly set into place by rulers and other flat-edged tools.

In January, Park's longtime compatriot Kim, who painted glimmering water droplets, died at 91. Kim had established a museum devoted to his work and now Park is following suit. The first of his two museums, focused on his Dansaekhwa work, is scheduled to open in the Jongno area of Seoul in August 2022. Land has been don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oughly 22,000-square-foot building, designed by Yang Kiran, is being funded by the Park Seo-Bo Art and Cultural Foundation. (His first son, Park Seung-Jo, is its chairman.)



Rendering of the Park Seo-Bo Dansaekhwa museum under construction in Seoul, designed by Yang Kiran. It will focus on his Dansaekhwa (monochrome) works. Park Seo-Bo and Gizi Foundation



In the garden of Gizi, his gallery-studio-residence in Seoul. Woohae Cho for The New York Times

The more ambitious endeavor is in Yecheon, Park's birthplace. For a museum surveying his life's efforts (he will donate some 120 pieces), Park has been courting the Swiss architect Peter Zumthor. His work is "almost like going into a cathedral in the morning hours," he said. (His favorite Zumthor building is the Kolumba, a tranquil art museum in Cologne, Germany, of gray brick and wood.) The architect has not yet signed on, and details of the project, backed by local officials, are still being determined, but Park has a history of getting what he wants.

When bidding at auction on porcelain moon jars from the Joseon Dynasty (1392—1910), Park said he often competes fiercely. At least half a dozen of the lustrous white urns were scattered about the room. "I love them almost like a crazy person," he said. Most were nearly spherical, with subtle, intriguing variations. But one had a thick, oblong ripple around its entire body. It was "the odd one in the belly" of the kiln, he said, explaining that it dated back perhaps 300 years. Normally, the artisans would have discarded such a piece. "But this one, in spite of it being wonky, had a balance," he said. "Because it can stand on its own, they didn't break it."

A version of this article appears in print on , Section AR, Page 12 of the New York edition with the headline: A Revolutionary Scribbles His Way To Artistic Posterity